

12-02 (통권 제 473호)

2012. 1. 13.

지속가능 성장을 위한

경제주평

Weekly Economic Revie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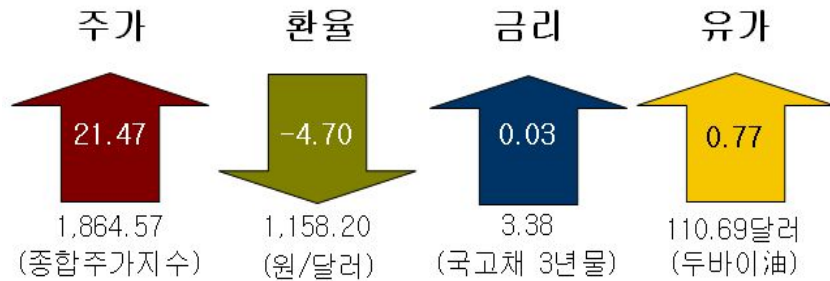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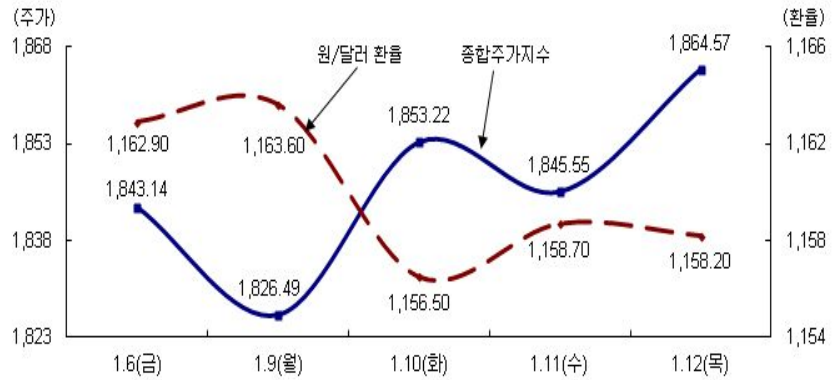
- 2012년 10대 희망요인



現代經濟研究院
HYUNDAI RESEARCH INSTITUTE

Better than
the Best!

週間 主要 經濟 指標 (1.6~1.12)



차 례

주요 경제 현안	1
□ 2012년 10대 희망요인	1
주요 국내외 경제지표	22

□ 본 자료는 CEO들을 위해 작성한 주간별 경제 경영 주요 현안에 대한 설명 자료입니다.
 □ 본 보고서에 있는 내용을 인용 또는 전재하시기 위해서는 본 연구원의 허락을 얻어야 하며, 보고서 내용에 대한 문의는 아래와 같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괄 : 유 병 규 경제연구본부장 (2072-6210, bkyoo@hri.co.kr)
 □ 작성 : 김 동 열 수석연구위원 외 (2072-6213, dykim@hri.co.kr)

Executive Summary

□ 2012년 10대 희망요인

■ 2012년은 국내외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경제성장을 전망치도 하향 조정되는 등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어려울수록 희망의 근거를 마련하여 자신감을 되찾고 내실과 경쟁력을 다시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취지에서 10대 희망요인을 선정하였다.

■ 경제·산업

① FTA 허브 본격 시동

한-미 FTA 발효는 아시아-미국-EU를 잇는 FTA 허브의 중간 지점이다. FTA 허브 구축은 수출·생산·투자를 증대시키고 국내 고용과 내수를 이끄는 새로운 희망이 될 것이다. 이는 포스트 무역 1조 달러의 초석으로 교역 규모와 일자리 증대에 꾸준히 기여하고, 아시아-미국-유럽을 잇는 무역·투자·생산의 교두보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이 될 것이다. 또한, 상품 수출에 비해 경쟁력이 낮은 서비스 수출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그러나 FTA 허브를 한국 경제의 신성장동력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중국과의 FTA 조기 타결, 내·외국인 투자자를 위한 투자·생활환경 개선 및 안정적인 환율 관리가 필요하다.

② 의료산업의 눈부신 성장

GDP 대비 1.6%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의료산업의 성장이 가속화될 것이다. 국내의 우수한 의료 기술과 IT·BT의 융합, 그리고 줄기세포 기술의 상용화는 국내 의료산업의 발전을 견인할 것이다. 이에 따라 의료관광의 성장도 지속될 것으로 기대된다. 따라서 법·제도적인 장벽을 사전에 제거하여 의료산업의 발전 기반을 견고히 해야 한다.

③ 높은 성장세의 관광산업

2012년은 한국의 관광산업이 새로운 도약의 발판을 마련하는 해가 될 것이다. 2009년부터 시작된 두 자리 수 외국인관광객 증가율을 이어갈 것으로 보이며 이 추세가 계속된다면 2020년 외국인관광객 2천만 명과 300억 달러 관광수입의 목표를 무난히 달성하고 세계 10대 관광국으로 자리매김하게 될 것이다. 단기적으로 한류의 확산 여수 세계박람회 개최, 제주 세계 7대 자연경관 확정, 10개의 세계문화유산 보유국의 지위 등이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것이다. 중장기적으로 관광산업의 질적 변화를 위해 MICE산업 육성, 의료관광시장개발, 해양레저산업 활성화 등에 주력해야 한다.

④ 선도적 연구개발 투자

한국은 경제위기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연구개발투자를 통해 신기술분야 특허의 양과 질적 측면에서 높은 성과를 보이며 높은 과학기술력으로 지속성장을 뒷받침하고 있다. 한국의 과학기술력은 이미 OECD 국가 중 상위권에 속하지만, 최근 과학기술력이 국가경쟁력을 좌우하기 때문에 지속적인 투자가 필요하다. 따라서 민간과 정부간의 협력을 통해 R&D투자를 늘려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고, 국가경쟁력 제고에 주력할 수 있는 과학르네상스 시대를 열어야 한다.

⑤ Korea As No.1 시대의 도래

반도체, 철강, 조선 등 전통적인 한국의 세계 1등 품목은 물론이고, TV,냉장고,자동차 등의 분야에서도 기존 세계 일등 제품들이 주춤한 사이에 막강한 경쟁력을 기반으로 한국의 제품들이 세계 일등 제품으로서 세계 시장의 중심으로 진입하고 있다는 사실은 국내외적으로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2012년의 수출경쟁력 확보와 경제 성장의 기반이 될 희망요인이다.

■ 교육·인프라

⑥ 우수한 인적 자원

우리나라는 지식기반 경제의 핵심 성장요소인 우수한 인적 자원이 풍부하여 제 2 고도성장을 이룰 수 있는 저력을 보유하고 있다. 높은 교육열과 인재를 중시하는 문화적 자산은 인적 자원의 글로벌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토대를 제공해왔다. 특히, 인적 자원의 질적 측면에서도 세계적인 경쟁력을 확보하여 차세대 성장 산업에 활력을 제공할 것으로 전망된다.

⑦ 세계 최고수준의 '백본' 인프라

2011년 IMD 발표 한국의 국가경쟁력은 22위에 불과하지만, IT·교통·물류 등 백본(Backbone) 인프라는 세계 최고수준이다. 유무선 인터넷으로 연결된 사이버 네트워크는 물론 KTX, 고속도로, 항공, 항만 등 하드웨어 인프라가 잘 갖춰져 한국경제의 강력한 수출경쟁력과 지속적인 성장을 뒷받침할 전망이다. 세계 최고수준의 백본 인프라는 2012년의 불확실한 국내외 경제 환경 속에서 보이지 않는 해결사 역할을 할 희망요인이다.

■ 사회·문화

⑧ 역동적인 국민성

단합과 희생정신으로 무장한 역동적 국민성은 위기 때마다 한국경제의 가장 큰 버팀목 역할을 해 왔다. 경제의 경이적인 발전을 일궈낸 내재적 힘은 위기 때마다 단결과 협동정신으로 위기를 조기에 극복하게 만든 공동체 의식과 다양한 문화적 가치 추구를 향한 열정, 그리고 '98 금모으기 운동, '02 월드컵 거리 응원, '07태안 오염제거 봉사활동 등 역경 속에서도 뚝고 나가는 긍정적 태도와 수많은 예상치 못한 위기 상황에 빠르게 대처하는 적응력(ADAPT)이 가능했기 때문이다. 앞으로 우리 국민들이 가진 역동적인 국민성의 요소들을 좋은 방향으로 극대화시킨다면 2012년의 불확실성을 타개하고, 향후 선진국으로 도약하는데 긍정적 역할을 할 것이다.

⑨ 세계화된 한류

한국의 대중문화 콘텐츠가 세계 각국으로 확산되면서 한류는 글로벌 네트워크 시대 최초의 문화 전파 사례로서 세계 문화 역사의 새로운 흐름을 창조하고 있다. 특히 한류의 세계화는 한국을 제품을 잘 만드는 나라에서 문화 콘텐츠도 우수한 나라로 알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제품에서 감성적 가치를 추구하는 소비가 증가하는 추세 속에서 한류는 한국 제품의 매력이 더욱 높아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⑩ 기대되는 남북 관계

2012년 남북 관계는 양측 모두 정권교체기를 맞아 새로운 전환점을 맞게 될 것이다 무엇보다 6자회담의 재개 등으로 한반도 리스크의 감소와 함께 남북 교역 재개 및 남북한의 시너지 효과 등으로 남북 관계의 양적 질적 발전이 기대된다. 2012년 서울 핵안보 정상회의를 전후로 6자회담의 재개와 남북 회담의 재개로 남북 관계의 회복이 모색될 것이다. 이에 따라 중단되었던 남북 교역이 재개되고 금강산 관광이 재개되는 등 남북 경협이 크게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현재 북한이 추진하고 있는 SOC사업과 지하자원 개발에 남한이 참여할 경우 남북 산업의 높은 시너지 효과가 기대된다. 따라서 2012년 남북 관계의 전환과 협력을 통해 한반도 안정은 물론 남북 경협 확대에 따르는 경제적 이익을 도모하고 이를 통해 장기적으로는 국가 성장 동력의 확보 및 남북 통일을 대비해야 한다.

1. 희망요인 선정 배경

○ 국내외 경제 환경의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성장률 전망치도 하향 조정되는 등 위기감이 높아지고 있으나, 자신감을 되찾고 내실과 경쟁력을 다지는 계기로 삼고자 '10대 희망요인'을 선정함

- 2012년이 2011년보다 경기상황이 나빠질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에서 우리자신을 돌아보는 계기 필요

- 그동안 너무도 당연하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전 세계가 부러워할만한 우리의 모습을 그려봄으로써 앞날에 대한 구체적인 희망의 근거를 마련함

○ 희망요인은 3개의 분야로 나누어 경제-산업 분야에서 다섯 개, 교육-인프라 분야에서 두 개, 사회-문화 분야에서 세 개 등 모두 10개를 선정

- 경제·산업 분야에서는 FTA허브 본격 시동, 의료산업의 눈부신 성장, 높은 성장세의 관광산업, 선도적 연구개발 투자, Korea As No.1의 증가를 선정

- 교육·인프라 분야에서는 우수한 인적 자원, 세계 최고수준의 백본 인프라 등 두 가지를 선정

- 사회·문화 분야에서는 역동적인 국민성, 세계화된 한류, 새로운 남북관계 등 세 가지를 선정

< 2012년 10대 희망요인 >

경제·산업	교육·인프라	사회·문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FTA 허브 본격 시동 - 의료산업의 눈부신 성장 - 높은 성장세의 관광산업 - 선도적 연구개발 투자 - Korea As No.1의 증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수한 인적 자원 - 세계 최고수준 백본 인프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역동적인 국민성 - 세계화된 한류 - 기대되는 남북관계

2. 2012년 10대 희망요인

① FTA 허브 본격 시동

○ (의미) 아시아-미국-EU를 잇는 FTA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증대된 수출·생산·투자 동력이 국내 고용과 내수를 이끄는 FTA허브 전략이 한국 경제의 새로운 희망임

-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EU, 미국과 FTA를 체결한 국가로서 글로벌 FTA 네트워크를 지속해서 확충하고 있음
- 한국은 2004년 4월 칠레와 첫 번째 FTA를 체결한 이후 2011년에 EU, 페루와의 FTA를 포함하여 총 45개국과 7개의 FTA를 발효하였음. 한편, 2011년 11월에는 미국과의 FTA가 양국의 국회비준을 통과하여 2012년 초 발효될 예정임

○ (배경) FTA 네트워크의 확대는 교역 규모와 일자리 증대, 생산·투자의 교두보 확보 및 국제 경쟁력 제고의 계기가 될 것임

- 포스트 무역 1조 달러의 초석으로 교역 규모와 일자리 증가에 기여
- 우리나라는 EU, 미국 등과의 FTA로 전세계 GDP의 58.2%(2010년, 자국 포함 기준임)¹⁾, 세계 국토의 18%와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고 경제 영토를 확장
- 특히, 미국과의 FTA가 발효되면 서비스 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이로 인한 신규 일자리 증대로 연결될 수 있음
- FTA 발효 후 칠레, ASEAN, 인도 등과 교역량이 전년대비 크게 증가하였고, 싱가포르, ASEAN, 인도와는 발효 후 무역수지 흑자규모가 발효 전보다 커졌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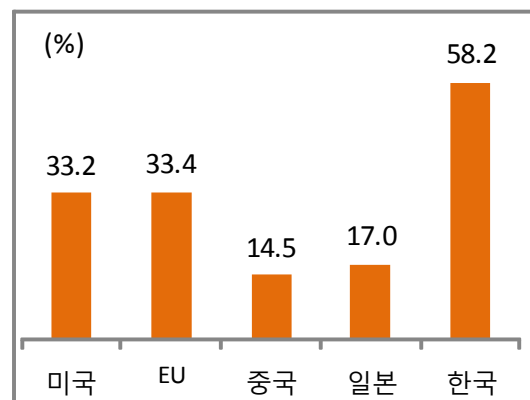
<한국의 FTA 현황>

발효된 FTA	협상·준비 중인 FTA
한-ASEAN	한-멕시코
한-EFTA	한-캐나다
한-EU	한-호주
한-싱가포르	한-터키
한-인도	한-중 외
한-칠레	
한-페루	
한-미국(2012.2월 발효예정)	

자료: 외교통상부.

주: 2011년 12월말 기준임.

<주요국의 FTA 경제 영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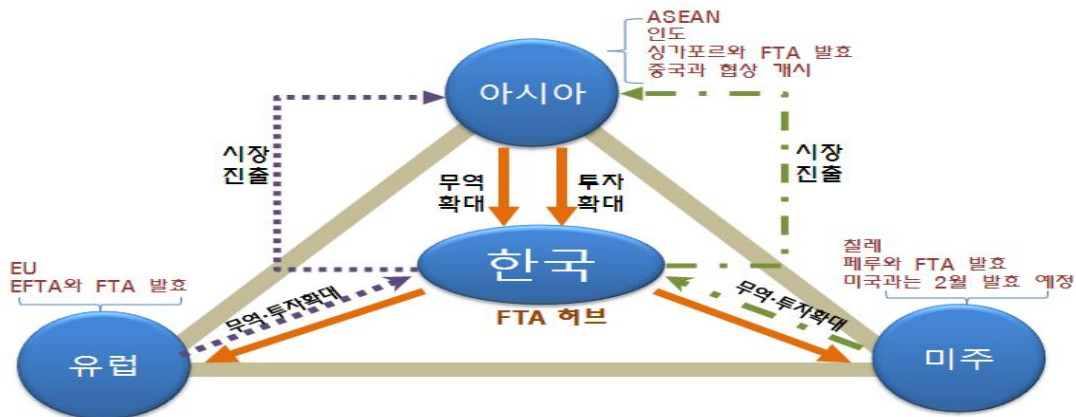
자료: WTO, IMF, 현대경제연구원.

주: 1) GDP는 2010년말, FTA체결은 2011년 9월 기준이며, 한국은 미국을 포함.

1) 칠레가 FTA를 맺은 국가는 전세계 GDP의 86.6%, 멕시코는 71%로 세계 1, 2위를 차지하고 있고, 한국은 3위를 기록

- 아시아·미국·유럽을 잇는 FTA로 무역·투자·생산의 교두보로 성장하는 계기
· 중국·일본 등은 미국이나 EU로의 높은 관세장벽을 극복하기 위해 한국시장을 활용할 것이고, 외국인 투자자들도 아시아권 시장 공략을 위한 교두보로서 국내 투자를 증대시키는 무역굴절(Trade deflection) 효과²⁾가 커질 수 있음
- 선진 기업과의 경쟁을 통해 국내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임
· 상품과 서비스 시장의 개방 확대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기업들의 국내 진출이 늘어남으로써 국내 산업과 서비스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 것임
· 2010년 기준, 한국의 서비스 수출은 세계 14위로 상품 수출 7위, 무역 규모 9위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조한 실정임

<FTA 허브 전략>



주: → 은 아시아 국가들이 한국을 교두보로 미주와 유럽 시장 진출을 --> 은 유럽국가가 한국을 통해 아시아로 --> 은 미주 국가들이 한국을 통해 아시아 진출을 확대하는 것을 의미

○ (시사점) FTA 허브를 한국경제의 신성장 동력으로 삼기 위해서는 중국과의 FTA 조기 타결, 투자·생활환경 개선 및 안정적인 환율 관리가 필요

- 중국과의 FTA 체결은 글로벌 FTA 네트워크를 완성시킬 수 있는 만큼 체결 효과는 극대화하면서 조기에 타결하는 방안을 강구
· 한편, 내외국인 투자의 적극적 유치를 위해서도 송도 등 경제자유지역의 국내외 홍보를 강화하고 투자·생활환경 서비스를 향상시켜 나가야 함
- 또한, 급격한 환변동이 수출입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안정적으로 관리
· 급격한 환율 변동은 관세인하 효과의 상쇄, 금융 시장 불안요인이 될 수 있는 만큼 외환보유액의 안정적 관리와 내국인의 외화예금장려 등 환율 시장 안정책도 보완

경제연구본부 선임연구원 조호정 (02-2072-6217, chjss@hri.co.kr)

2) 무역굴절(Trade deflection) 효과란, 자유무역지역이 형성되면 역내 국가 간에는 관세가 철폐되고 서비스 산업의 진출 환경이 개선되므로 역외 제품이 역내 저 관세국을 통해 역내고관세국으로 수입되거나 역내 다른 국가의 진출을 위해 자유무역지역의 국가에 투자를 확대하는 것을 말함

② 의료산업의 눈부신 성장

- (의미) 국내 의료기술이 세계적인 수준에 도달하여 암 치료와 성형 분야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줄기세포 및 바이오 기술 등의 우수성으로 의료산업과 의료관광의 발전이 지속될 것으로 기대
- (배경) 의료산업의 생산량이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IT·BT 기술 융합 및 줄기세포 기술 상용화 등으로 국내의료기술의 우수성을 인정받아 국내 의료산업이 해외로 진출하고 의료관광객도 증가하는 추세임
- GDP 대비 1.6%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의료산업은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으며, 향후 IT·BT 융합기술의 적용으로 고성장을 지속할 것으로 예상
 - 2010년 의약품과 의료기기의 GDP 비중은 각각 1.3%, 0.3% 차지하고 있음
 - 의약품 생산액은 연평균 8% 성장하였으나, 수입을 포함한 의약품 시장규모는 연평균 9% 성장률을 기록하였음
 - 의료기기의 생산액은 연평균 12%, 시장규모는 연평균 9% 성장률을 기록하여, 의료기기 수입량이 정체되고 국내 의료기기 생산량이 증가함을 보임
 - 향후에는 IT·BT 등 첨단기술이 의료산업에 활용되어, 예방, 진료, 사후관리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의료산업의 발전을 주도할 것으로 예상

< 국내 의약품 및 의료기기 생산 추이 >

(단위: 조원, %)

계정항목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연 평균 성장률	
GDP	865.2	908.7	975.0	1,026.5	1,065.0	1,172.8	6%	
의약품	생산액	10.6	11.5	12.6	13.9	14.8	15.6	8%
	GDP 비중	1.2%	1.3%	1.3%	1.4%	1.4%	1.3%	-
	시장규모	12.4	13.9	15.1	17.0	18.0	18.9	9%
의료 기기	생산액	1.7	1.9	2.2	2.5	2.8	3.0	12%
	GDP 비중	0.2%	0.2%	0.2%	0.2%	0.3%	0.3%	-
	시장규모	2.5	2.9	3.3	3.6	3.6	3.9	9%

자료 : 보건산업진흥원 통계시스템, 통계청, 한국은행.

주 : 의약품 및 의료기기 생산액은 명목가치로 집계되어 명목 GDP를 활용.

시장규모는 국내 생산량과 수입의 합에서 수출량을 제외한 값.

- IT·BT 기술의 융합으로 u-Health 및 바이오의약품 시장의 급성장이 전망 되고, 국내 줄기세포 분야에서도 기술 상용화가 급진전할 것으로 예상
 - 정보통신 기술을 접목, 시·공간의 제약 없이 예방, 진단, 진료 등이 가능한 국내 u-Health 시장은 2010~2014년 연평균 12.5% 성장 전망³⁾
 - 2007~2010년 연평균 22.6% 성장을 기록한 국내 바이오의약품 시장은 2010년 3조 5,000억원에서 2015년에는 14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⁴⁾
 - 바이오의약품 임상시험 승인이 연평균 20% 이상 성장하였으며, 국내 줄기세포 기술로 세계 최초로 급성심근경색치료제 상용화에 성공

- 세계적 수준의 성형외과 기술을 보유하여 의료관광객 방문이 증가하고, 국내 의료기술을 해외로 보급하는 등 의료 선진국으로 부상
 - 2011년 의료관광객의 14%는 선진국 대비 94% 의료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피부·성형 치료 목적으로 방문하고 있음⁵⁾
 - 2010년 의료관광객은 8만1,789명으로 전년대비 36% 증가, 2011년에도 30% 이상 증가하여 11만명을 초과, 2015년 30만명에 달할 것으로 전망⁶⁾
 - 국내 의료기술의 우수성을 인정받아 UAE는 건강검진센터 및 재활병원을 설립에 한국 의료진이 참여하여 국내 의료기술을 해외로 보급
 - 또한 말레이시아의 의사들은 국내 의료 연수에 참여하여 임상시험 등 첨단 의료 기술·시설·시스템의 운영 노하우를 전수받음

- (시사점) 의료산업의 도약을 위해서 법·제도적 장벽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사전에 제거할 필요가 있음
 - 국내 IT·BT 기술 융합의 진전과 더불어 의료기술이 급성장하여 세계 의료관광을 주도하는 의료선진국으로 도약할 것
 - 법·제도적 장벽으로 성장 가능성을 제한하지 않도록 세심한 검토가 필요함
 - 특히 u-Health는 법적인 제한으로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으므로 규제를 완화하고 표준화기술을 보급할 필요가 있음

산업연구본부 연구위원 이원형 (02-2072-6233, lee@hri.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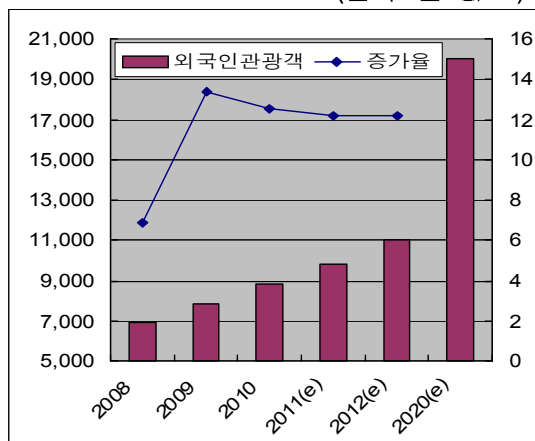
3) 한국보건산업진흥원, u-Health 신산업창출을 위한 사업화 전략 연구, 2010.
 4) 식약청, 2011년도 바이오의약품 주요 성과 및 12년 전망, 2011.12.15.
 5) 신명수, 한국 미용성형외과의 현재와 미래, J Korean Med Assoc, 2011 June
 6) 한국의료관광총람, 2012. 12. 27. 문화체육관광부, 2010년 관광동향 연차보고서, 2011.08.

③ 높은 성장세의 관광산업

○ (의미) 2012년에도 2009년부터 시작된 두 자리 수의 외국인관광객 증가율을 이어가 2020년 세계10대 관광국 도약은 더 이상 꿈이 아닌 현실

- 2011년 한국을 찾은 관광객이 980만 명으로 사상최대를 기록할 전망
 - 2011년 11월까지 누적 외국인관광객 수는 작년보다 10.2% 증가한 895만 2,413명으로 이미 2010년 1년 간 기록했던 879만 명을 1.7%이상 초과
- 2010년 기준 매년 8.6%씩만 성장한다면 2020년 외국관광객 2천만 명 가능
 - 2020년 관광산업은 관광 수입 30조 원 이상을 올려, 전체 GDP의 5%이상 담당하고 150만 명 이상을 고용할 것으로 예상

< 외국인관광객 추이와 전망 >
(단위: 천 명 %)



자료: 「2011년 11월 관광객 입출국/관광수입·지출 분석」, 한국관광공사, 2012년 1월 2일.

< 한국 관광산업의 경제적 역할 >

구분	2011	2021
GDP 기여	62조 1,609억 원 (5.1%)	90조 6,452억 원 (4.9%)
고용 기여	131만 5천 명 (5.4%)	148만 9천 명 (5.7%)
관광 수입	16조 7,472억 원 (2.5%)	30조 2,553억 원 (2.2%)

주: 1) 외국인 관광객이 2011년부터 매년 5.6%씩 늘어나 2021년 1,654만 명을 예상하고 추정
2) 전체효과로 직·간접적인 효과를 모두 합침
자료: South Korea, Travel & Tourism Economic Impact 2011, WTTC.

○ (배경) 한류확산, 여수세계박람회 개최, 제주도의 세계 7대 자연경관 선정, 10개의 세계문화유산 보유국 등과 지정학적인 위치가 긍정적으로 작용

- 한류 확산이 외국인들의 한국방문 증가로 이어지기 시작
 - 2010년 문화체육관광부가 실시한 조사에서 외국인들은 한국을 찾은 이유 중 10위(10.1%, 복수응답)로 '한류스타 팬 미팅 및 촬영지 방문'을 선택
 - 한국문화에 대한 선호가 한국방문을 가져오는 일종의 선순환 구조 정착

- 2012년 5월 12일부터 8월 12일까지 여수와 그 일원에서 여수세계박람회 개최
 - 올림픽, 월드컵과 함께 세계 3대 축제에 속하는 세계박람회(EXPO)가 여수에서 바다(ocean)와 해안(coast)을 주제로 5월부터 8월까지 3개월 간 개최
 - 세계 106개 국가와 9개 국제기구가 참가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외국인 43만 명을 포함해 모두 800만 명의 관광객이 찾을 것으로 예상
- 2011년 11월 12일 제주도가 세계7대 자연경관의 하나로 선정
 - 제주도는 New 7Wonders of Nature가 주관한 전 세계인들을 대상으로 28개 자연경관을 놓고 벌인 투표를 통해 최종 7위 안에 포함
 - 함께 선정된 브라질의 아마존밀림, 베트남의 하롱베이, 브라질과 아르헨티나 사이에 있는 이과수 폭포, 인도네시아의 코모도 섬, 푸에르토리코의 프린세사 지하 강 그리고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테이블 산과 같은 반열에 오름
- 한국은 동아시아에서 세 번째로 많은 세계문화유산 보유 국가
 - 2011년 현재 한국은 UNESCO가 인정한 세계문화유산으로 해인사 팔만대장경, 종묘, 석굴암과 불국사, 창덕궁, 수원 화성, 고인돌(고창, 화순 그리고 강화), 경주, 제주도, 조선왕릉 그리고 안동 하회마을의 10개 보유
 - 이탈리아가 47개로 1위를 한국은 터키와 함께 공동 25위를 차지했고 동아시아에서는 41개의 중국, 16개의 일본의 뒤를 이어 3위 기록
- 경제와 인구대국인 중국과 일본의 중간에 위치해 이들 국민들의 방문에 용이
 - 2003년 기준으로 20억 명, 또는 세계인구의 32%가 인천공항으로부터 비행시간으로 세 시간 반 거리에 거주하고 있고 인구 백만이 넘는 도시가 51개

○ (시사점) 고부가가치 관광산업을 육성하고 관광객의 방문횟수와 체류기간을 늘리는 데 정책의 주안점을 두며 한국에 대한 홍보를 강화해야 함

- MICE산업, 의료관광, 레저관광 등의 육성을 통해 관광산업을의 부가가치 창출 능력을 제고
- 다시 찾는 외국관광객들을 늘리고 동시에 이들이 더 오래 머물도록 하기위해 볼거리와 먹을거리를 다양화하고 숙박, 언어 등 관광 인프라를 보강
- 한국의 숨어있는 매력을 발굴해 전 세계에 적극적으로 알리는 홍보를 강화

산업연구본부 연구위원 예상한 (02-2072-6232, syeahk@hri.co.kr)

④ 선도적 연구개발 투자

○ (의미)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지식자산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고 있으며, 선도적인 연구개발 투자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음

- 경제활동이 점차 글로벌화되면서 연구개발과 특허를 통해 제품의 차별성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해지고 있으며, 이를 통해 무형자산을 축적해야 지속성장이 가능해짐

○ (배경) 한국은 최근 두 번의 경제위기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연구개발(R&D) 투자 혁신을 통해 신기술분야 특허의 양과 질적 측면에서 높은 성과를 보이며 높은 과학기술력으로 지속성장을 뒷받침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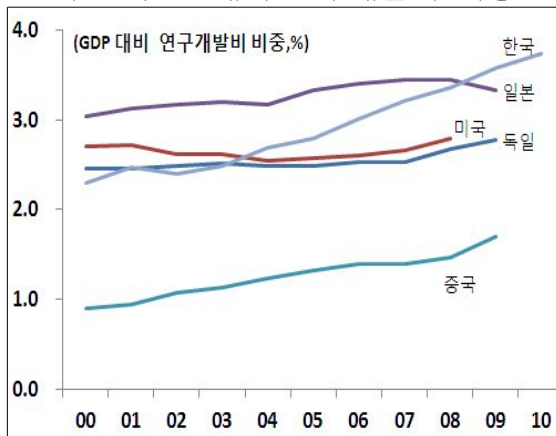
- 혁신을 위한 정부와 민간의 R&D 투자 규모에 있어서 한국은 OECD 국가들 가운데 최상위권에 속함. 또한 한국 기업들은 신제품과 신공정의 투자를 지속적으로 늘리면서 선도적 연구개발 투자를 이끌고 있음

· 2010년 한국의 전체 R&D 투자의 GDP 대비 비중은 3.57%로 비교 대상 국가인 미국(2.79%), 일본(3.33%), 독일(2.78%)보다 높은 수준임

· 또한, 한국 기업들의 연구개발비 중 신제품 투자 비중이 가장 높음. 2010년 신제품 개발비는 15조원으로 2005년 8.2조원 대비 88.1% 증가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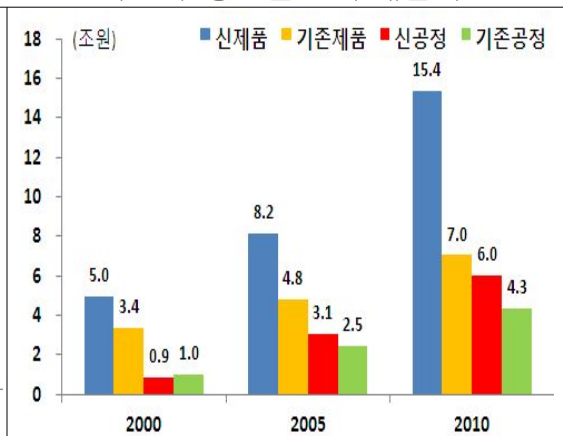
· 신공정 개발비는 6조원으로 2005년 3.1조원 대비 96.0% 증가로 가장 높은 증가율 기록하며 기존 제품 또는 공정을 탈피하며 혁신적인 제품개발에 주력

< 주요국 GDP대비 연구개발비 비중 >



자료: OEC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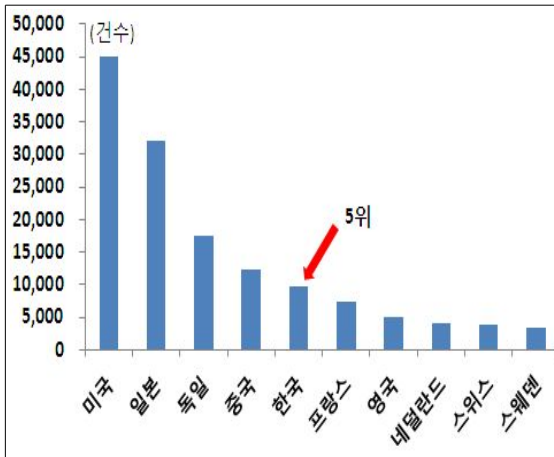
< 기업의 용도별 연구개발비 >



자료: 교육과학기술부, 연구개발활동조사보고서.

- 우리나라는 과학기술 성과인 특허출원수와 특허의 질에 있어 우수한 성과를 보며 OECD 국가 중 과학기술력 평가가 상위권에 속함
- PCT 특허 출원의 국가별 건수를 살펴보면 한국은 9천669건으로 미국(44,940건), 일본(32,148건)등에 이어 5위를 기록
- 2000년에서 2010년까지의 평균 OECD 특허의 질 지표⁷⁾에 따르면 한국은 13번째로 특허의 질이 높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 또한, 한국은 정보통신, 전자 등 5대 기술분야에서 가장 우수한 국가로 평가 받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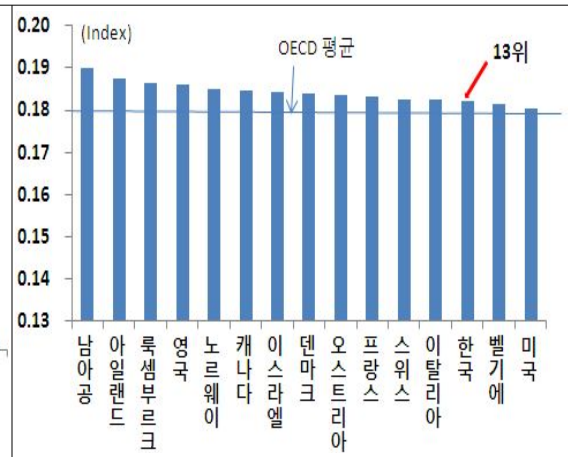
< 2010년 상위 10개국의 PCT 출원건수 >



자료: OECD.

주: PCT특허는 특허협력조약⁸⁾에 의한 특허.

< OECD 특허의 질 지표 >



자료: OECD.

주: 2000-2010년 평균임

○ (시사점) 선도적인 연구개발투자를 통해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며 국가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수 있도록 산·학·연·관의 공동 노력이 필요함

- 민간과 정부의 협력을 통해 연구개발투자를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효율적인 과학기술 투자로 특허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개선
- 연구개발투자의 성과와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관련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정비함으로써 불확실성과 기술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

경제연구본부 선임연구원 정 민 (02-2072-6220, chungm@hri.co.kr)

7) 특허질 지수(The Patent Quality Index)는 기술과 혁신의 경제적 가치를 고려하고 일반적으로 인용건수, 특허 규모, 요청건수등 6가지 지수를 복합적으로 나타냄. 지수 범위는 0에서 1사이임.

8) 특허협력조약(PCT: Patent Cooperation Treaty):출원인이 다수국가에 특허출원을 하는 경우 그 절차를 간편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동조약에 의한 출원건수는 개별국가의 기술력을 나타내는 지표로 평가받음.

⑤ Korea As No.1⁹⁾ 시대의 도래

○ (의미) 전통적인 세계 일등 제품들이 주춤한 사이에 막강한 경쟁력을 기반으로 한국의 제품들이 세계 시장의 중심으로 진입하면서 한국경제의 수출경쟁력과 지속적인 성장을 뒷받침할 희망요인

- 2차 석유파동 이후 1980년대 일본 도요타의 자동차나 최고의 히트상품이자 오디오 혁신을 불러왔던 소니의 워크맨 성장세의 데자뷰를 보듯 대한민국도 2008년 금융위기와 석유가격 급등을 배경으로 자동차, TV 등의 제품들이 세계 일등 제품으로서 세계 시장의 중심으로 진입하고 있음

○ (배경) 세계시장점유율 1위인 제품들이 지속적으로 늘어나면서 수출경쟁력은 물론 국가 브랜드 가치 향상에도 도움을 주고 있음

- 우리나라의 일류상품 중 세계시장 점유율 1위인 품목은 2002년 49개에서 2010년 131개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임
 · 현재 우리나라 수출을 견인하는 세계시장 점유율 1위인 품목은 총 131개이며, 세계시장점유율 5위 이내에 드는 품목을 포함하면 405개임
 · 세계시장점유율 1위 상품 중 대기업 제품은 59개이고 중소기업 제품도 72개에 이르며, 세계 5위 이내에 드는 274개에 달하는 바, 총 405개의 제품이 세계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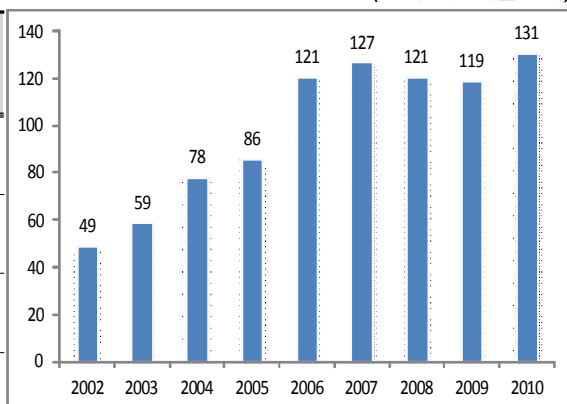
<세계일류상품 수>

(단위: 개)

구 분	점유율 1위 품목수	점유율 5위 이내 품목수	합계
대 기업 제품	59	128	187
중 소 기업 제품	72	142	214
기 업 미 지정	-	4	4
합계	131	274	405

<세계일류상품 수 추이(점유율1위)>

(단위: %, 백만달러)



자료: 지식경제부

9) 에즈라보겔의 'Japan As No.1'(1979년)에서 말하듯, 세계 1위의 일본제품이 많아지면서 일본도 선진국이 됨

- 기술 경쟁력을 기반으로 한 삼성전자와 LG전자 등 한국기업의 IT 제품들이 이제는 글로벌 시장의 구조조정에 있어서 중요한 변수로 떠오르고 있음
- 전자기기 제품을 기반으로 2008년 금융위기 속에서도 삼성전자는 처음으로 LED TV를 개발하여 불황 극복의 발판을 삼았음
- 선진기업들조차 삼성전자와 LG전자가 주도하는 기술경쟁에서 밀리면서 급기야는 TV사업을 축소해야 할 처지에 놓이게 됨

- 특히, 1990년대까지 Sony로 대표되는 일본제품 소유가 부의 상징이었지만 이제는 한국산이 그 자리를 차지함
 - 일본전자제품은 최고의 선호 제품이었고 전자제품시장의 개방이 단번에 한국기업들을 고사시킬 것이라는 인식이 팽배했음
 - Sony에 대한 인기가 너무 높아 Sony제품을 무조건적으로 구입한다고 해서 “소니 병(Sony Disease)”라는 말이 회자됨
 - 그러나, 시장이 개방되었음에도 삼성과 LG와 같은 국내브랜드가 Sony를 누르고 압도적 우위를 점하고 있음

- 국내 전자밥솥제조 기업들도 국내 주부들에게 인기가 많았던 코끼리 밥솥을 국내시장에서 몰아내고 세계시장을 석권
 - 1980년대 까지 일본여행 한국인들의 필수 구입품은 코끼리 밥솥으로 이의 밀수를 둘러싸고 정치적인 파장마저 불러오기도 함
 - 밥솥시장이 개방되면 코끼리 밥솥에 한국시장이 붕괴할 것이라는 의견이 많았지만 그 반대로 코끼리 밥솥은 한국에서 완전하게 몰락했으며, 한국의 전자 밥솥이 세계최고임을 자타가 공인

- (시사점) 기존 세계일등제품을 벤치마킹하여 새로운 세계일등제품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이를 통해 선진국으로 진입하는 기반을 마련해야 함
 - 기존 세계일등제품에 만족해서는 대한민국의 질적인 경제 성장을 이끌어 나갈 수 없으며, 경제적 발전없이 선진국 진입도 어려움
 - 안정적 선진국 사회의 진입을 위해 미래성장의 동력이 될 수 있는 세계일등 제품들을 끊임없이 발굴해야 하고, 이를 기반으로 대한민국의 경제 성장을 이끌어내야 함

산업연구본부 연구위원 장후석 (02-2072-6234, chahus@hri.co.kr)

⑥ 우수한 인적 자원

○ (의미) 우리나라는 지식기반 경제의 핵심 성장요소인 우수한 인적 자원이 풍부하여 제2의 고도성장을 이룰 수 있는 저력을 보유함

- 기술수준 및 산업구조의 고도화가 빠르게 진척되면서 자본이나 노동력 같은 전통적 생산요소보다 고급 인적 자원이 가장 중요한 성장의 요인으로 부상함
- 우리나라의 인적 자원은 세계 최고 수준의 경쟁력을 갖고 있어 선진국 진입을 앞당길 수 있는 신기술·신성장 산업의 성장 동력을 제공함

○ (배경) 높은 교육열과 우수한 인재의 만남으로 양적·질적 측면에서 높은 인적 자원 경쟁력을 확보함

- 교육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인재를 중시하는 문화적 자산은 인적 자원의 글로벌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토대를 제공
- 우리나라는 고등학교 진학률(6위), 대졸 인구 비율(2위) 학업 성취도(5위), 과학 교육 수준(8위)로 국민 다수가 높은 교육 수준에 도달함
- 미국 유학생 수는 중국, 인도에 이어 세계 3위이나 인구를 감안한 비율은 세계 최고 수준으로 글로벌 인재교육의 괄목할 만한 양적 발전 시현

< 한국의 인적 자원 경쟁력 순위 >

항목	순위	비고
고등학교 진학률	6위	98.0%
대졸 인구 비율	2위	58.0%
학업 성취도	5위	15세 PISA 점수
과학 교육 수준	8위	대학교 과학, 공학 점수

자료: IMD (2011) 국가경쟁력평가
 주: 1) 56개국 기준
 2) PISA란 15세 학생들을 대상으로 읽기, 수학, 과학 등을 평가한 것

< 미국 대학 내 유학생 수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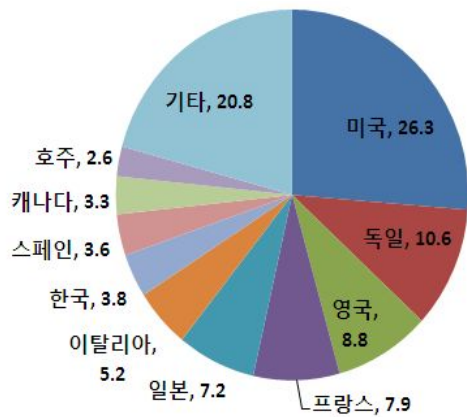
(단위: 명)



자료: IIE (20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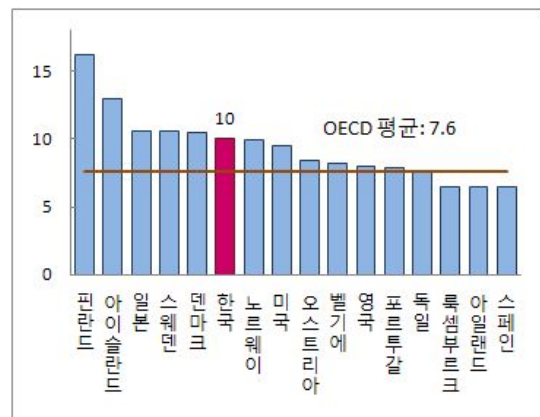
- 또한, 인적 자원의 질적 측면에서도 세계적인 경쟁력을 확보하여 차세대 성장 산업에 활력을 제공할 것으로 전망됨
- OECD 국가 전체의 신규 과학기술분야 박사학위자수에서 각국이 차지하는 비율을 보면 한국은 3.8%로 미국 26.3%, 독일 10.6% 등에 이어 세계 7위임
- 또한, 취업자 천 명당 연구원 수는 10명으로 OECD 평균(7.6)을 훨씬 넘어 세계 6위이며, 기업 내 연구원 수 역시 OECD 국가들 중 6위 수준임

<신규 과학기술분야 박사학위자수 국별 비중>
(단위: %)



자료: OECD (2009)

< 취업자 천 명당 연구원 수 >
(단위: 명)



자료: OECD (2010)

○ (시사점) 창의적 인적 자원이 경제 성장의 동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체계적 육성, 혁신성 강화, 효율적 활용을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음

- 창의적 연구 인력의 체계적 육성을 위해 과학기술자의 발굴, 양성, 유입, 안착을 위한 정책 수립이 요구됨
- 국가 차원의 교육 혁신을 통해 획일적 경쟁을 지양하고 다양한 혁신가 (innovator)를 양성하는 데 주력해야 할 것임
- 우수한 인적 자원을 적극 활용할 수 있는 고기술·신지식 산업의 성장을 위해 국가적 차원의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산업연구본부 연구위원 장우석 (02-2072-6237, jangws@hri.co.kr)

⑦ 세계 최고수준의 '백본'(backbone) 인프라¹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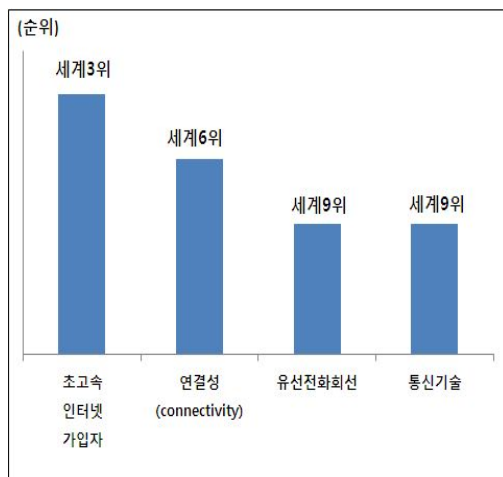
○ (의미) 2012년의 불확실한 국내외 경제 환경 속에서도 IT·교통·물류 등 세계 최고수준의 백본 인프라는 한국경제의 수출경쟁력과 지속적인 성장을 뒷받침할 희망요인

- 불확실성 높아진 2012년에 한국경제를 뒷받침할 희망요인은 IT·교통·물류 등 세계 최고수준의 백본 인프라로서, 유무선 인터넷으로 연결된 세계 최고수준의 사이버 네트워크와 철도, 도로, 항공, 항만 등 하드웨어 인프라

○ (배경) 한국의 국가경쟁력은 세계 22위 수준¹¹⁾에 머물러 있지만, 인터넷 등 IT 네트워크와 교통·물류 등 하드웨어 인프라는 세계 최고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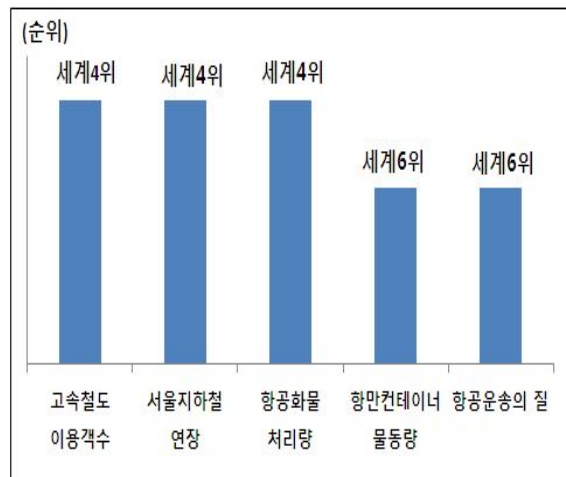
- 고속철도 KTX를 통한 반나절 생활권, 거미줄처럼 연결된 도로망, 세계 최고수준의 항공수송능력 및 공항서비스, 세계 최고수준의 IT 인프라 등은 한국경제의 경쟁력을 뒷받침하는 숨은 공로자라는 평가를 받고 있음
 · 인천공항의 승객 및 화물 처리능력과 이용객 만족도는 세계 최고수준이며, 부산항을 비롯한 국내 항만도 동북아 최고의 환적하물 처리능력을 보유

< 한국의 우수한 IT 인프라 >



자료: IMD(2011)

< 한국의 우수한 교통·물류 인프라 >



자료: IMD(2011), 국토해양부, 서울시

10) 사람의 척추(backbone)처럼 나라경제의 근간이 되는 네트워크와 인프라를 가리킴

11) IMD(국제경영개발원), 국가경쟁력보고서(World Competitiveness Yearbook), 2011

- 하드웨어 인프라 이외에도 인터넷과 유무선망을 통한 사이버 네트워크 역시 세계 최고 수준으로, 초고속인터넷 가입자 세계 3위, IT네트워크를 통한 연결망(connectivity) 세계 6위, 유선전화 가입자 세계 9위 등
- 카드 한 장이면 모든 것이 해결되는 세계최첨단의 대중교통 시스템을 갖추고 있으며, IT시스템과 연계한 '지능형 교통망'을 해외에 수출하고 있음
 - 한국은 거의 전 지역에서 교통카드 한 장으로 모든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세계에서 유일한 국가
 - 몽고를 포함한 아시아, 남미 등 세계 각지에 시스템을 수출하고 있음
- 육상, 해상, 항공 등 3차원의 수준 높은 물류 인프라를 중국, 러시아, 유럽으로 통하는 TCR, TSR 등 대륙횡단철도로 연결할 수 있다면 대한민국은 명실공히 동북아시아 물류허브로 거듭날 수 있을 것임
 - 세계 최고수준의 인천공항, 동북아 최고의 환적하물 처리능력을 갖춘 항만들, 거미줄처럼 연결된 고속도로와 고속철도를 중국횡단철도(TCR), 시베리아횡단철도(TSR)로 연결하면 한국을 통과하는 물동량이 대폭 증가할 것임
- (시사점) IT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첨단 IT서비스를 창출하고, IT와 제조업의 융합을 활성화시키는 지원 제도를 마련하며, 국내의 교통물류 인프라를 중국, 러시아, 유럽으로 연결하는 TCR, TSR 연계망 구축을 추진
 - IT네트워크는 최고수준이지만, IT인프라 활용도와 IT서비스업의 경쟁력은 상대적으로 저조하며¹²⁾, 원격근무비율이 0.7%에 그치는 등 생산성향상 효과도 미흡
 - 네덜란드 사업체의 49%, 미국 공공기관 근무자의 30%가 원격근무를 채택함에 비해 한국은 공공부문의 2.4%, 전체의 0.7%만 원격근무를 채택¹³⁾
 - 국내의 우수한 교통·물류 인프라의 활용도를 높이고, 동북아 물류허브로서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국내 철도망과 중국횡단철도(TCR), 시베리아횡단철도(TSR)의 연결을 추진하는 새로운 남북관계 패러다임이 필요함

경제연구본부 수석연구위원 김동열 (02-2072-6213, dykim@hri.co.kr)

12) 세계 IT시장에서 한국기업의 점유율을 보면 반도체는 45%, 휴대전화는 23%, LCD는 46%로 높지만, IT서비스의 경우 1.1%에 불과함 (IDC(2009. 8))

13) 한국정보화진흥원, '저탄소 녹색성장시대 스마트워크 국제 심포지엄', 2009.9

⑧ 역동적인 국민성

- (의미) 단합과 희생정신으로 무장한 역동적 국민성은 위기 때마다 한국경제의 가장 큰 버팀목 역할을 해옴
 - 뚝뚝 뭉치는 단결을 통해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힘은 자발적이고 역동적인 국민적 의지가 유기적으로 작용한 결과
 - 외환위기 당시의 금모으기 운동과 태안반도의 기름유출에 따른 오염제거 자원봉사 등의 단결과 희생정신은 위기를 부활로 반전시키는 힘을 보여줌
 - '88 올림픽, 2002년 월드컵 거리 응원과 2018년 평창 올림픽 개최 성공 등을 통해 역동적인 국민의 힘을 경제발전의 에너지로 승화시킴

< 역동적 국민성 사례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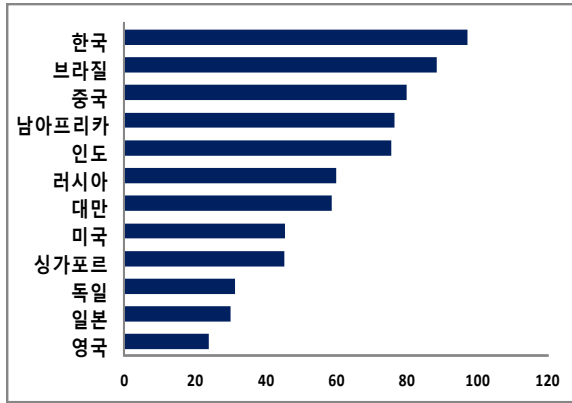
	참가 규모	특징 및 성과
4·19 혁명(1960)	10만 명	독재 종식 계기
새마을 운동(1970)	전국민	쑥세계 저개발국가에 독자적 발전 모델 제시
6·10 민주항쟁(1987)	500 만 명	직선제 개헌 도출
'88 올림픽	290만 명 (관중수)	국민 소득 5천 달러 도약의 발판
금모으기 운동(1998)	350만 명	국민 자발적으로 금 227톤(약 2조 5천억)모금
2002 월드컵 거리 응원	2,190만 명 (연 인원)	4강 진출 및 '붉은악마', '대한민국' 등 국가적 브랜드 가치 창출
태안 오염제거 자원봉사('07)	123만 명 (연 인원)	자발적인 자원 봉사의 본보기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 재구성.

- (배경) 경제의 경이적인 발전을 일궈낸 내재적 힘은 공동체 의식, 열정, 긍정적 태도, 적응력 등을 바탕으로 한 역동적 국민성의 소산
 - **공동체 의식** : 위기 때마다 강한 단결과 협동 정신으로 위기를 조기에 극복함
 - 두레, 계, 향약, 품앗이 등 전통적 상부상조 정신은 작지만 세계 속의 거대한 국력을 가진 국가로 부상하게 만든 밑거름이 됨
 - **열정** : 흥겨움을 중시해온 다양한 문화적 가치 추구는 한국을 글로벌 문화 강국으로 도약시키는데 큰 기여
 - 열악한 인프라에서 세계 스포츠 스타(박찬호, 박지성, 김연아 등) 배출, K-POP 열풍을 이뤘던 것은 열정적 '끼'와 도전 의식이 결합한 성과
 - 또한, 우리의 문화적 호기심은 전체 인구의 78%(3,700만 인터넷 이용)가 인터넷을 통해 트위터, 소셜네트워크 등 디지털 문화 얼리어답터(Early Adopter)로 받아들여지고 있음

< 주요 국가별 경제의 역동성 >

(단위 :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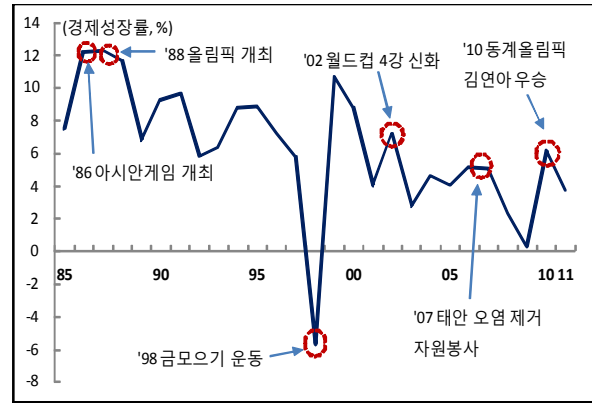


자료 : IMD WORLD COMPETITIVENESS YEARBOOK 2011.

주 : 본 지표는 국제경영개발원(IMD)에서 경영자 설문조사를 통해 15개 경제 측면 매력지수 항목 중 역동성 부문을 평가한 점수.

< 역동적 국민성의 표출 >

(단위 : %)



자료 : 한국은행.

주 : 2011년 경제성장률은 OECD 전망치.

- **긍정적 태도** : 역경 속에서도 낙관적이고 긍정적인 자세로 위기를 극복해 옴
 - '하면 된다', '빨리 빨리'가 갖는 국민적 열정은 낙관적이고 긍정적인 태도로 이어져 경제 및 산업 발전의 토대가 됨
 - 긍정적이고 자발적 자세는 '98년 금모으기 운동, '07 태안 오염제거 봉사활동 등 위기 속에서 더욱 부각되어 옴
- **적응력(ADAPT)** : 수많은 예상치 못한 상황을 겪어 오면서 위기 대응 능력을 키워옴
 - 끊임없는 외세의 침입과 정권의 교체 속에서 새로운 상황에 대한 대처 능력이 탁월함
 - 또한, 급속한 스마트폰 이용률과 IT 기술 발전 속도 등 새로운 기술을 습득한 후 활용 및 적응능력이 다른 국가들보다 뛰어남
- (시사점) **협동·단결하는 역동적인 국민성은 2012년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 속에서 더욱더 힘 있게 살아나 세계 속의 선진한국으로 도약하는 밑거름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
 - 협동심, 근면함을 바탕으로 한 역동적 국민성은 2012년 위기 국면을 새로운 기회로 만드는 프론티어적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
 - 우리 국민들이 지닌 복원력, 끼, 긍정적 태도, 자기 리더십 등 역동적인 국민성의 요소들을 좋은 방향으로 극대화시킨다면 2012년의 불확실성을 타개하고, 향후 선진국으로 도약하는 데 있어서도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임

경제연구본부 연구위원 한재진 (02-2072-6225, hzz72@hri.co.kr)

⑨ 세계화된 한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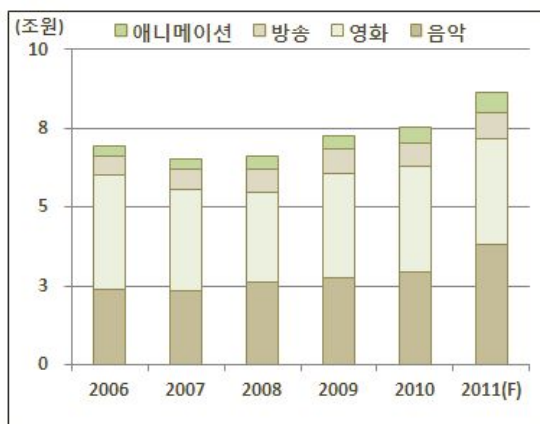
○ (의미) 한국의 대중문화 콘텐츠가 세계 각국으로 확산되면서 한류가 세계 문화사의 새로운 흐름을 창조하며 관심이 집중

- 1990년대 후반 중화권에서 시작된 한류는 2000년대 중반 드라마를 중심으로 일본, 아시아로 확대된 이후 최근에는 K-Pop이 문화적 장벽을 넘어 서구로 확산
- 10년 이상의 도전으로 경쟁력을 축적한 한류는 특히 세계 인터넷 인프라의 발전에 힘입어 글로벌 네트워크 시대 최초의 세계적 문화 확산 사례로 성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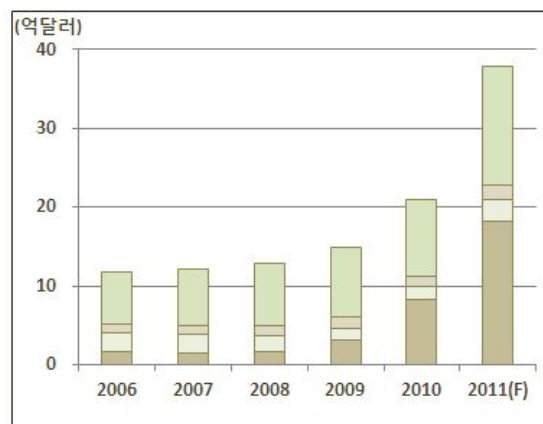
○ (배경) 한류의 세계화로 문화 산업의 성장 및 관련 수출의 증가는 물론, 이를 바탕으로 국가 이미지 제고와 제품 수출 증가 등 부가 효과가 발생

- 한류의 세계적 확산은 관련 산업의 매출 및 수출 증가로 이어지면서 문화 산업이 새로운 경제 성장 동력으로서의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기대
- 특히 K-Pop으로 이슈화되고 있는 음악 산업은 세계 음악 시장의 성장이 정체된 상황에서도 한류 확산의 주역으로서 지속적인 매출 성장세를 시현
- 이에 힘입어 관련 산업의 매출은 2011년에도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으며, 특히 수출액은 이미 3분기에 2010년 연간 수출액을 크게 상회한 상황
- 또한 K-Pop 열풍은 한국 문화 콘텐츠 전반의 관심 확대로 이어져 과거 문화 수출의 중심이었던 드라마 및 영화 한류 재점화의 기회가 발생

< 한류 관련 주요 산업 매출액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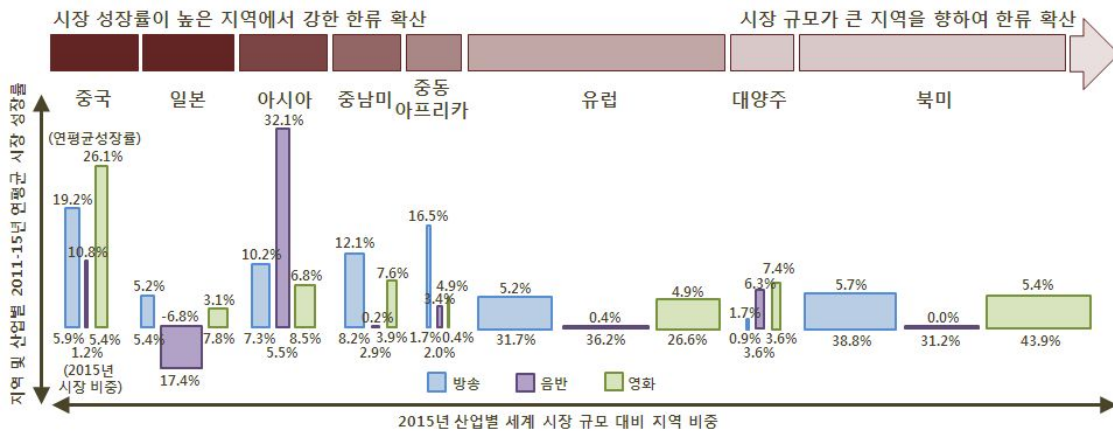
< 한류 관련 주요 산업 수출액 >



자료: 한국콘텐츠진흥원, 현대경제연구원 추정.
 주: 방송은 외주 독립제작사 기준.

- 또한 한류의 세계화는 문화적 성과에 그치지 않고 국가 브랜드 제고는 물론, 문화와 관련이 크지 않은 제품군들의 이미지 향상 등에도 긍정적 영향이 기대
 - 한류를 통해 한국은 제품을 잘 만드는 나라에서 문화 콘텐츠도 우수한 나라로 도약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 한편, 제품에서 감성적 가치를 추구하는 소비가 증가하는 흐름 속에서 한국 제품의 매력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
 - 특히 한류의 중심이자 관련 산업 성장 속도가 빠른 아시아, 중남미 등 신흥국의 젊은 세대들은 미래의 주요 소비자로서 한국 상품 선호도의 상승이 가능
 - 이와 함께 한류의 확산 방향이 문화적 장벽을 넘어 북미, 유럽 등 서구 사회로 향하고 있다는 점에서 보다 규모가 큰 시장에서의 기회 발생이 기대

< 한류의 강도 및 방향과 세계 시장 변화 전망 >



자료 : PwC, 현대경제연구원 추산.
 주 : 아시아 시장은 중국 및 일본 시장을 제외한 수치.

- (시사점) 현재 성공을 거두고 있는 한류 아웃바운드의 지속성 유지와 동시에 한류를 통해 국내로 파생되는 인바운드 관련 경쟁력 확보가 필요
 - 한류가 단순한 문화적 현상이나 일시적 유행에 그치지 않도록 한류와 국제 사업 간의 연계성 강화와 함께 스토리 콘텐츠의 경쟁력 확보가 요구
 - 한류를 통한 한국에 대한 관심 확대 및 방문객 증대와 같이 한류에서 발생하는 인바운드와 관련된 경쟁력 제고를 위한 인재 양성과 인프라 구축이 중요

산업연구본부 선임연구원 김필수 (02-2072-6238, pskim@hri.co.kr)

⑩ 기대되는 남북 관계

○ (의미) 2012년 정권이 교체되는 시기에 남북 양측이 관계 개선을 위한 노력을 확대함으로써 남북 관계가 새로운 전환점을 맞게될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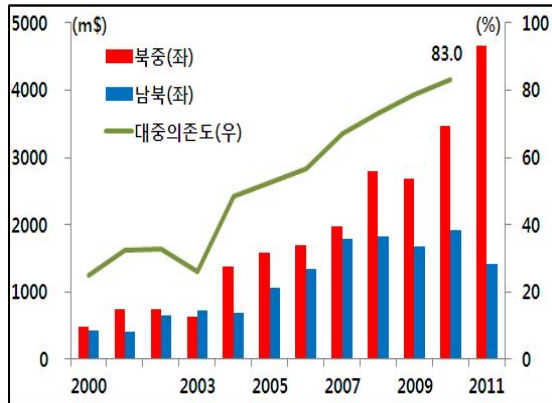
- 지난해 김정일 위원장의 사망에 이어 2012년 남한의 선거 일정이 겹치면서 남북 관계가 새롭게 개선될 수 있는 모멘텀이 마련
 - 특히 정권 말기에 남북 관계 개선을 위한 국민들의 요구가 커지고 있으며 정권 교체기에 있는 우리 정부가 북측에 대화 제의 및 인도적 지원 확대 등 화해의 제스처를 취할 가능성 높음
 - 북한도 단기적으로 체제 안정화에 성공할 경우 대외 관계의 리스크를 줄이고 만성적인 경제난 해결을 위해 남북 관계 개선을 모색할 가능성 존재

○ (배경) 6자회담의 재개로 한반도 리스크의 감소와 함께 남북 교역 재개 및 남북 산업의 시너지 효과 등으로 남북 관계의 양적-질적 발전이 기대

- **6자회담 재개** : 2012년 서울 핵안보정상회의를 전후로 6자회담의 재개와 남북 회담의 재개로 남북 관계 재개를 모색
 - 김 위원장 사망 직후 뉴욕채널을 통해 북미 회담이 개최되고 구체적인 대북 식량지원 등이 논의되었으며, 향후 관련국간 조율을 통해 6자회담 재개 가능성 증대
 - 2012년 서울 핵안보정상회의에서 북한 핵문제가 논의될 것으로 전망되며, 이를 전후로 6자회담 등을 통한 북핵 협상이 진전되고며 한반도의 북핵 리스크가 크게 감소할 것으로 기대
- **남북 교역의 재개** : 6자회담 재개 가능성 등으로 남북 관계가 대화국면으로 전개되면서 5.24조치로 중단된 남북 교역과 금강산 관광 등이 재개
 - 지난 2008년 이후 남북 교역은 정체 또는 감소된 반면 북중 교역은 빠른 성장세를 보여 대중 교역의존도는 2010년 현재 83%(남북교역 제외)에 달함
 - 또한 평균 30만명에 달했던 남북 관광사업은 2009년부터 중단되어 현재까지 재개되지 못하고 있는 반면, 북중 관광 협력은 확대되고 양상
 - 그러나 5.24조치의 해제로 남북 교역이 재개될 경우 이러한 북한의 대중 의존도는 크게 하락할 것이며, 특히 금강산 관광의 재개시 연간 750억원에 이르는 관광 수입이 예상¹⁴⁾

14) 수도권-개성 지역, 동해안-금강산 지역을 연계한 관광객 수가 50만 명에 달하면 남측으로의 관광수입은 연간 75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됨. 현대경제연구원, VIP Report, 11-30(통권 500호) 2011.

< 북중 & 남북 교역 추이 및 대중 의존도 >



< 남북 관광 협력 추이 >

구분	금강산 관광	개성 관광	평양 관광	합계
98~'02	514,243	-	-	514,243
2003	74,334	-	1,019	75,353
2004	268,420	-	-	268,420
2005	298,247	1,484	1,280	299,011
2006	234,446	-	-	234,446
2007	345,006	7,427	-	352,433
2008	199,966	103,122	-	303,088
'09~현재	-	-	-	0

자료: 통일부, 2011.

주: 중국 의존도는 남북교역 제외한 수치

자료: 통일부

- 남북 산업의 시너지 효과 : 북한의 SOC 건설 사업과 지하자원 개발 사업에 참여할 경우 남북 산업의 높은 시너지 효과가 기대
 - 현재 북한은 경제 개발을 위해 나선특구와 황금평 지역의 SOC 건설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에 한국 기업이 참여할 경우 높은 시너지 효과가 기대
 - 이외에 개성공단 2·3단계, 라선, 신의주, 해주, 남포, 원산 등 6개의 산업단지 건설될 경우 남한 경제에는 86조 2,000억 원의 생산유발 효과 발생¹⁵⁾
 - 또한 7,000조원에 이르는 북한의 지하자원의 개발에 남한기업들이 참여하게 될 경우 남한의 부존 자원 확보 및 자주개발률이 확대¹⁶⁾

< 남한 참여 가능한 북한 SOC 건설 계획 >

구분	내용	소요자금 (억달러)
도로	총 연장 2,490km 건설·개건	150
철도	총 연장 4,772km 건설·개건	96
발전	60kW급 화력발전소 10기 건설	50
	송전망 1,500km 건설	10
공항	평양국제공항 여인민 1,200만 명 규모로 확장	12

자료: 통일뉴스 2011.

< 주요 광물자원의 경제적 가치 비교 >

구분	잠재가치 (억 원)		북/남(배)
	북	남	
금	613,274	13,093	46.8
은	19,124	5,162	3.7
철	3,045,300	22,717	134.1
아연	260,680	6,892	37.8
몰리브덴	16,669	7,470	2.2
인회석	388,326	0	-
마그네사이트	26,797,320	0	-
무연탄	5,194,350	1,569,848	3.3

자료: 통일부, 2011.

○ (시사점) 2012년 남북 관계의 전환과 협력을 통해 한반도 안정은 물론 남북 경협 확대에 따르는 경제적 이익을 도모하고 이를 통해 장기적으로는 국가 신성장동력의 확보를 추진하고 남북 통일을 대비해야 함

경제연구본부 선임연구원 최성근 (02-2072-6223, csk01@hri.co.kr)

15)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남북한 건설 분야 협력사례 분석과 북한 내 산업단지 개발 방안", 2010. 한국은행. "대북 SOC투자의 산업연관효과 분석", 2000.

16) 광물 수입의 10%를 북에서 조달한다고 가정하면 연간 17억달러의 수입 비용 절감 현대경제연구원, ibid.

주요 국내외 경제지표

□ 국내외 성장률 추이

구분	2010년					2011년				2012년
	연간	1/4	2/4	3/4	4/4	연간*	1/4	2/4	3/4	
미국	3.0	3.9	3.7	2.5	2.3	1.5	0.4	1.3	1.8	1.8
유로 지역	1.8	0.4	1.0	0.4	0.3	1.6	0.8	0.2	0.2	1.1
일본	3.9	6.0	2.1	3.3	-1.1	-0.5	-3.6	-1.3	5.6	2.3
중국	10.3	11.9	11.1	10.6	9.8	9.5	9.7	9.5	9.1	9.0
한국	6.2	8.5	7.5	4.4	4.7	4.2	4.2	3.4	3.5	4.0

주: 1) 2011년, 2012년 전망치*는 IMF 2011년 9월 기준이고 한국은 현대경제연구원 전망치임
 2) 미국, 일본은 전기대비 연율, EU는 전기대비, 중국, 한국은 전년동기대비 기준임.

□ 국제 금융 지표

구분	2010년말	2011년		2012년			
		6월말	12월말	1월 6일	1월 12일	전주비	
해외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	3.30	3.16	1.88	1.97	1.92	-0.05%p
	엔/달러	81.19	80.66	77.66	77.17	76.89	-0.28¥
	달러/유로	1.3350	1.4492	1.2955	1.2785	1.2708	-0.0077\$
	다우존스지수(p)	11,578	12,414	12,218	12,360	12,471	111p
	닛케이지수(p)	10,229	9,817	8,455	8,390	8,386	-4p
국내	국고채 3년물 금리(%)	3.38	3.76	3.34	3.35	3.38	0.03%p
	원/달러(원)	1,134.8	1,067.7	1,151.8	1,162.9	1,158.2	-4.7원
	코스피지수(p)	2,051.0	2,100.7	1,825.7	1,843.1	1,864.6	21.5p

□ 해외 원자재 가격 지표

구분	2010년말	2011년		2012년			
		6월말	12월말	1월 6일	1월 12일	전주비	
국제 유가	WTI	91.40	95.18	99.22	101.62	98.96	-2.66\$
	Dubai	88.80	106.75	104.89	109.92	110.69	0.77\$
CRB선물지수	332.80	338.05	305.30	309.48	309.86	0.38p	

1) CRB지수는 CRB(Commodity Research Bureau)사가 곡물, 원유, 산업용원자재, 귀금속 등의 주요 21개 주요 상품선물 가격에 동일한 가중치를 적용하여 산출하는 지수로 원자재 가격의 국제기준으로 간주됨.



現代經濟研究院

HYUNDAI RESEARCH INSTITUTE